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인민은행,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

□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(国人民银)은 올해들어 세 번째로 지급준비율 인상 조치를 단행함.

-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을 0.5% 인상한 가운데, 인상이 예상되었던 농촌신용조합(农村信用社)과 촌진은행(村镇银行)*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상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함.

* 촌진은행: 농촌진흥을 목적으로 한 소형 농촌은행

- 올해에만 이미 세 차례(1월 12일, 2월 12일)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로 중대형 상업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최고 17% 수준에 달하고, 약 2,500억 위안 규모의 시중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□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, 당분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- 중국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경기과열에 따른 자산거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.
- 또한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, 기업물가지수(CGPI)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.
- 기업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통상 3~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은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음.
- 한편, 전문가들은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올해 4월 정도로 예정되었던 금리 인상이 2/4분기 거시경제운용지표가 공식 발표되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(중국신문망, 5/2, 신경보, 5/13)